

Introduction

전시를 열며

삼국의 여인들, 새로운 세계를 열다

여기 새로운 세계를 연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이자 이 땅의 여신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왕후로, 환상적인 이야기 속 낯선 존재로, 한국 문학의 기원이 된 여성들이 우리 앞에 그 매력을 드러냅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한편에서 지혜와 용기, 욕망을 표현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Women in the Three Kingdoms Opened New Worlds

1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다

Created
New Worlds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 건국 신화와 함께 기이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천신(天神)의 손자 단군왕검, 고구려를 세운 웅맹한 주몽,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신성한 태생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연은 이들의 어머니도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본래 곰이었다가 인간이 되어 환웅의 배필이 된 웅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지켜낸 유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알영을 낳고 신선술을 익혀 산신이 된 사소. 새로운 세상을 연 여신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웅녀 熊女



제왕운기 帝王翁記
이승휴 | 17세기 추정
국립한국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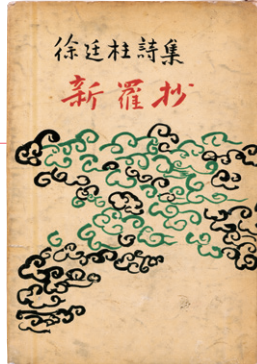
최초의 어머니, 웅녀
물과 하늘을 이은 땅의 신, 유화
신라 왕과 왕후의 어머니, 사소

유화 柳花



동국이상국전집 東國李相國全集
이규보 | 17세기 중반
국립한국문학관

사소 娑蘇



신라초 新羅抄
서정주 | 1961년 | 정음사
한국근대문학관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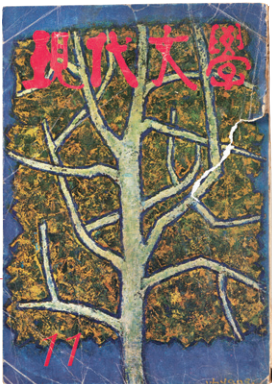
운명을 개척하다

Carved Out
Own Destiny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왕, 가야의 시조 김수로의 왕후 허황옥, 신라 전성기를 이룬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왕후 문희에 대한 기록에는 이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면모와 여성으로서 지니는 자긍심을 드러낸 선덕왕. 바다를 건너 머나먼 이국으로 자신의 소명을 찾아 온 허황옥. 가야와 신라 두 세력을 잇고 삼국통일의 업적을 이룬 문무왕의 어머니 문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선덕왕 善德王



현대문학 239호 現代文學 二三九號
1974년 11월 | 현대문학사
국립한국문학관

신라 여왕의 예언, 선덕왕
영인을 찾아 떠난 공주, 허황옥
운명을 바꾼 곰, 문희

허황옥 許黃玉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 등 | 161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희 文姬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6

3부

낯선 존재와 만나다

Encountered with
Strange Beings

『삼국유사』는 현실 너머의 낯선 존재를 긍정하는 세계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화랑 김현과 사랑을 나누고 희생으로 그 사랑을 지켜낸 호랑이 처녀.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인간은 물론 바다의 용왕으로부터 추앙받은 수로부인. 용의 아들의 배필이 되고 역신과 동침한 처용의 아내. 낯선 세계 속 경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준 여성들을 만나봅니다.



호랑이 처녀 金現感虎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권문해 | 1836년 | 국립한국문학관

감동적인
호랑이의 사랑,
호랑이 처녀

아름다움에
바치는 노래,
수로부인

역신과 동침한
용의 아내,
처용의 아내

수로부인 水路夫人



동천 冬天
서정주 | 1974년 (6세) | 민중서관
국립한국문학관(故 하동호 기증자료)

처용의 아내 處容妻



악학계범 樂學軌範
성현 외 | 1610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3부 이야기의 시작

3부 이야기의 시작

4부

이야기를 남기다

Left st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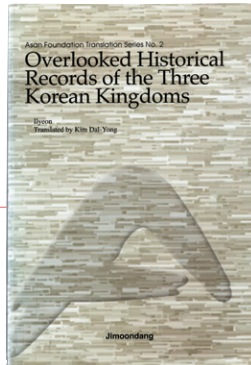
『삼국유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고 역사의식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각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지만, 고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상상의 지평을 넓히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의 '유사(遺事)'는 역사에서 '남겨진 일, 버려진 사실'을 의미합니다. 일연은 역사에서 빠진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신화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와 노래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며 예술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고래의 이야기를 전하라, 삼국유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불국토와 설화
우리 고유의 노래, 향가
삼국유사의 재발견
삼국유사의 영향
세계로 나간 삼국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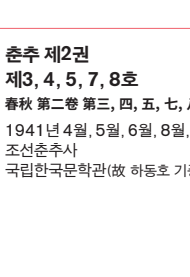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 | 1512년 | 국립한국문학관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
번역 김달용 | 2006년 | 지문당 | 한국문학번역원



삼국사기 三國史記
김부식 등 | 1711년 | 국립한국문학관



춘추 제2권
제3, 4, 5, 7, 8호
春秋 第二卷 第三, 四, 五, 七, 八號
1941년 4월, 5월, 6월, 8월, 9월
조선춘추사
국립한국문학관(故 하동호 기증자료)

5부

삼국의 여인들을 그리다

Painting Women of
the Three Kingdoms

이만익은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통적인 색채와 형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작가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근원과 정서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로부인영접도 水路夫人迎接圖
이만익 | 1995-2008 | 캔버스에 유화 | MK컬렉션

4부 이야기의 시작

5부 이야기의 시작

주최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국립한글박물관 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